

# LÉVY GORVY 厲為閣

레비고비 홍콩 개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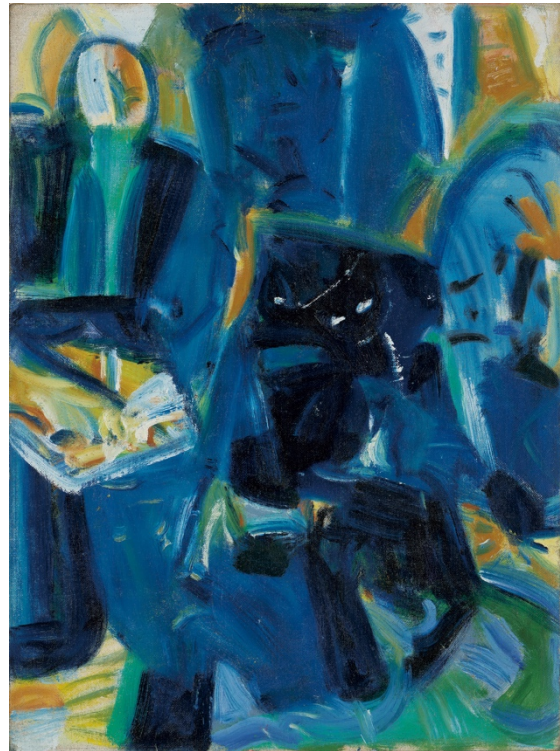
**Return to Nature | Zao Xue Han Zhang**

리턴 투 네이처 | 凜雪含章

2019년 3월 26일 - 5월 18일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좌: 피에르 솔라주 <회화 162 x 130 cm, 1963년 10월 6일> 1963. 캔버스에 유채, 162 x 130 cm. © 2019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ADAGP, Paris.  
사진: Studio SEBERT. 우: 우다위 <무제-35> 캔버스에 유채, 58 x 38.5 cm.

홍콩—레비고비 갤러리는 레비고비 홍콩 개관을 맞아 <리턴 투 네이처 | 凜雪含章>展을 개최한다. 3월 26일 개막하는 본 전시는 자연을 통해 화합과 명료함의 개념을 사유했던 동서양 작가들의 계보를 소개한다. 역사적인 세인트조지빌딩 (St. George's Building) 1층에 위치한 2500평방 피트 규모의 새 전시공간인 레비고비 홍콩에서 선보이는 이번 개관전은 우다위(吳大羽), 송동(宋冬),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하오량(郝量),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 조안 미첼(Joan Mitchell),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피에르 솔라주(Pierre Soulages), 팻 스테어(Pat Steir), 양웬량(顏文樑), 우인센(吳印咸), 자오우키(趙無極) 등의 작품을 한자리에 선보인다.

전시의 중문 제목인 <조설함장(澡雪含章)>은 5세기 중국 남조시대(양나라) 유협(劉勰)이 저술한 역사적인 문학평론서인 「문심조룡(文心雕龍)」에서 유래한다. ‘조설’은 맑은 영혼은 의미하는 한편 ‘함장’은 드넓은 마음을 뜻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미술의 역사에서 도덕적, 문화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시기마다 예술가들은 자신의 뿌리와 전통, 자연의 다채로움, 혹은 존재와 정신성의 성찰 등 가장 근본적인 주제들로 회귀해 왔다. 우다위는 1941년 자신의 제자였던 우관중(吳冠中)과 주데춘(朱德群)에게 보낸 서신에서 “철학적 논쟁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연과 가까이하며 삶의 진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나의 심장, 손과 눈으로 창작하며 독창적이고 순수한 무언가를 세상에 선보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리턴 투 네이처>의 다른 참여작가들 역시 세상의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근본적이고 깊이있는 현실과 조우하고자 했다.

본 전시에서 제안하는 자연의 개념은 자연 풍경을 초월하며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중력의 힘까지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물질적 세계를 포함한다. 전시의 참여작가들은 자연 안에서 통합적이고 명료하며 상호연결적인 창작과정을 탐색하고 마찬가지로 전통 안에서 새로운 동시대적 목소리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작품 안에서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구분 짓지 않고 인간의 상상력과 자연의 창의성을 통합하고자 시도한다.

전시의 참여작가들은 공통적으로 내면의 장애물 극복을 의미하는 ‘소약오장, 조설정신(疏瀹五藏, 澡雪精神)’과 자신의 재능을 걸으며 드러내지 않으며 내면의 순수함과 탁월함을 추구하는 ‘함장소질, 빙결연청(含章素質, 冰潔淵清)’의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들은 추상과 구상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풍경을 탐색한다. 일부 작품들은 체스처적인 추상과 자연의 감각적 기억을 상기하는 반면 일부는 자연의 묘사를 통해 삶의 가장 근본적인 이해를 형성하는 정치적 힘을 가지적으로 드러낸다.

레비고비의 봄 시즌 주요 전시로 선보이는 <리턴 투 네이처>는 3월 26일부터 5월 18일까지 개최된다. 본 전시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레비고비의 첫 전시로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동서양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연구 과정의 첫걸음일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리학적 경계와 구분을 넘어 미술의 진정한 본질인 열정과 모험정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갤러리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한 레비고비는 아시아의 새로운 거점인 레비고비 홍콩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전시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 컬렉터, 관객과 폭넓은 소통을 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어 레비고비 홍콩 개관을 맞아 레비고비는 갤러리의 중문 상호인 ‘리웨이거 (厲為閣)’를 소개한다. 새로운 이름에 담긴 의미 그대로 레비고비만의 전문성과 열정, 비전을 추구해 나가며 아시아에서의 의미있는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한다.

## **레비고비 (Lévy Gorvy)**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뉴욕 메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센트럴 홍콩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는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http://www.levygorvy.com) | @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marta@levygorvy.com](mailto:marta@levygorvy.com)  
Sybil Knot, Ogilvy PR, [sybil.kot@ogilvy.com](mailto:sybil.kot@ogilvy.com)